

트럼프 2기 출범에... 與 “한미동맹 강화·반도체 특별법 기대”

국힘 최고위...한동훈 “당정, 한미 동맹 위해 충분히 준비”

국민의힘은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에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대한민국에 대단한 중요한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며 “나라가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거론, “굴건한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공통의 발전을 이어 갈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생산적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 당정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국의 새 트럼프 정부와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변함없이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특

별법 조기 처리 등 반도체 분야 지원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바이오·2차 전지·AI(인공지능) 등 국가의 전략 최첨단 산업은 핵심 인력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개발,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에 한해서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족쇄를 풀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점잖은 외교는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트럼프 스타일’로 바뀌어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다.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의 주장을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은 약의 축에 대항할 굳건한 ‘자유축의 축’이라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의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확고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차분히 국익을 앞에 두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리할 때”라며 “먼저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원전과 방위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지분을 높여야 한다. 미 본토에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

일시 2024. 11. 7. (목) 11:00

장소 본청 당대표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 민생·경제 행보 고삐

이재명 “전쟁 위험 등 정부 대응 아쉬워”... 11일 경총과 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질서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큰데, 그중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전쟁 위기까지 불러오는 바람에 안 좋던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아쉬운 바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전 의원이 맡았다.

홍 전 의원은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주거 문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당이 요청한 정책 이슈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에 금

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전날 당 차원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민생·경제 행보와 메시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실용 노선을 추구해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지속하지만, 이 대표는 이와 거리를 둬서 “자신의 집권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역공을 피하는 동시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NBS에서도... 尹 지지율 19%

2주만에 최저치 경신...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반대 6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소폭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9%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해 3%포인트(p) 떨어진 수치로, NBS 조사 기준으로 국정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앉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잘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7%p 오른 74%로, 같은 조사에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정운영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24%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7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2주 전과 비교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변함이 없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p 늘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우리 정부가 참관단을 보내야 하는냐는 질문에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3%, ‘반대한다’는 응답이 61%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3%, 진보당 2%,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3%였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각각 1%p씩 올랐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내년 예산은 정부 재정 운영 포기한 ‘4포 예산’

안도걸 “이달내 재추계 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7일 “전날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재정운영의 역할을 모두 포기한 ‘4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 목표세수 달성, 재정준비 준수, 경제·민생·지역 활성화 4가지를 모두 포기한 예산안이라는 뜻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내년 경기하강 국면 우려 속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정부는 경상성장률(4.5%)보다도 낮은 지출증가율(3.2%)로 경기 역행적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며 비판했다.

3년 연속 세수결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으로 내년도 세수를 재추계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경제난과 민생고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 예산 운영의 여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재정이 부족한 경우 경제와 민생 분야 지출이 우선되어야 하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외교 분야 예산을 더 증액하고, 지역경제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시키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리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해외원조 사업 증액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자영업자 돕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삭감하면서, 무기사업과 해외원조 예산을 늘리는 정부가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